

도난 택배차 동료신고로 되찾고... 차로 위 유모차 구하고... 우리 동네 파수꾼 택배기사

배달하고 오니 택배차 사라져 신고
발 벗고 나선 동료기사 신고로 찾아
야기·강아지 사고 막은 미담 이어져
“긍정적 모습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회사 직원이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난당한 택배기사의 차량을 최초로 신고, 결국 차를 찾는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 미담 사례가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초 신고자는 님아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료 택배기사였다.

엄마의 손을 떠나 인도에서 차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던 유모차를 순발력을 발휘, 운전하던 택배차량으로 멈춰 차창이 찢힐 뻔 했던 사고를 막고, 택배를 나르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걸려 위태로웠던 강아지를 뚝으로 날려 구출하는 등 택배기사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상품을 나르던 택배기사는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배송을 하고 돌아와보니 정차해뒀던 차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이를 전해들은 동료 택배기사는 관련 사실을 TBS교통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문자로 제보했다.

해당 회사는 택배기사들이 쓰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도난 차량 번호를 공지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난 사건은 이를 뒤 분기점을 맞았다.

또다른 택배기사 김주영(가명)씨는 26일 오후 5시25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비상등이 켜져 있는 한 택배차량을 발견했다. 이를 본 김 씨는 해당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직감했다. 김 씨는 도난 택배차량의 기사와 같은 CJ대한통문 소속이었다. 앱으로 전달받았던 차량번호까지 다시 확인한 뒤 확신이 든 김씨는 곧바로 112에도 신고했다.

그러던 순간에 해당 차량이 움직이자 김씨도 무작정 자신의 차를 몰고 쫓아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던 도난 차량이 급격하게 유턴을 하면서 김씨는 안타깝게도 범인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7분 가량 추적했던 경로 및 예상 도주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수사에 도움을 줬다.

김씨는 이후 차량을 도난당한 택배기사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여전히 차량을 찾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자신이 쫓던 차량의 운전자가 범인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다시 김씨는 해당 주인에게 라디오 방송에 제보를 또 한번 하라고 조언했고, 결국 차량을 잃어버렸던 택배기사는 방송을 들은 추가 목격자들의 제보로 같은 날 저녁 늦은 시각에 경찰을 통해 도난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범인은 차량을 놓고 도망을 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제보자였던 택배기사 김씨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다보니 나도 택배차량을 잃어버렸다는 심정으로 무작정 쫓아갔다”면서 “앞으로는 차량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할 뿐”이라고 전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히 들어오며 택배·택배기사와 관련한 부정적·공정적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삶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는 택배가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coul.co.kr

하도급사,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신청 가능

중기중앙회 하도급법 설명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원청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제품 등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는 오는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이 개정돼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크게 오른 최저임금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등을 확대한 하도급법이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도 조정 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주관을 맞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늘어난 경우 하도급 업체나 중기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난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용 등도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전달됐다. /김승호 기자



14일 종로구 보령빌딩 중보홀에서 진행된 서울연구소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 보령제약 최태홍사장(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서울연구소 최성준 소장(여덟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령제약

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 구축 박차”

서울연구소 설립 5주년

설립 5주년 된 보령제약 서울연구소가 보령제약 국내의 임상시험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설립 5주년을 맞아 14일 종로구 보령빌딩 중보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서울연구소는 2013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임상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카나브, 암로디핀 복합제인 두카브, 카나브,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투베로 허가용 임상시험은 물론 멕시코 카나

브 허가용 임상시험 등을 관련기관들과 협업하며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향후 서울연구소는 올해 멕시코에서 두카브 허가용 임상시험을 시작해 아프리카에서는 카나브 단일제 IND 승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연구소는 카나브 패밀리 임상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카나브 패밀리는 한국에서 1만 4151명의 대규모 카나브 단일제 허가 후 임상연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약 4만 여명의 환자와 총 67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 가치를 입증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이대목동병원, 아프리카 어린이 7명에 새생명 선물

심장병 환아 무료 수술 진행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무료로 선천성 심장병 개심 수술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 의료봉사에는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와 손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해 엄명옥, 이은주, 주무근 간호사, 신상희 체외순환사 등의 심혈관 수술 전문 의료진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현지 의료진이 참관한 가운데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동만 교수의 지도 아래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2살 유아를



서동만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심장질환 어린이에 대한 선천성 심장병 개심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비롯해 심장질환 어린이 7명에게 무료 수술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장병 수술과 관련한 강연

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은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의 심장 수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현지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 선진 의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 등 총 4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의료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는 “앞으로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진 나라들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며 한국의 선진 의술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항고혈압·고지혈 3제 복합제 시판 허가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

일동제약은 고혈압 및 고지혈 치료용 3제 복합제인 텔로스톱플러스 개발에 성공, 해당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텔로스톱플러스는 혈압강화제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차단제(ARB) 계열의 텔미사르탄 및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암로디핀, 지질저해제인 스타틴(statin) 계열의 로수바스타틴을 조합해 단일 정으로 만든 제품이다.

이 제품은 텔미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와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본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반 환자의 경우에 세 가지 약제를 한 알로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 순응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텔로스톱플러스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3상시험을 통해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을 투여한 3제 요법군이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을 투여한 2제 요법군, 텔미



일동제약 본사. /일동제약

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투여한 2제 요법군에 비해 각각 고지혈증 조절, 고혈압 조절 측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 /유재희 기자

베트남TV 간접광고 희망 中企·벤처 모집

중진공 1000만원 광고비 50%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맞춘 베트남 시장 진출 기업을 위해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 참여사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상파·케이블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VTV6에서 8월 방영 예정인 뷰티 전문 프로그램 ‘Beauty Selection’에 30개의 뷰티·아이디어 생활용품을 간접광고하게 된다.

중진공은 1000만원 정도인 총 광고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촬영현장 대응 등 PPL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와 더불어 출연진의 SNS를 통한 간접광고 영상 홍보와 베트남 호치민 내 오프라인 시연 행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까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방송 관계자의 2차 심사 평가 의견을 통해 결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휴메딕스 저자극 수분크림 ‘엘라비에 더마 젤 크림’



휴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메딕스는 5개의 서로 다른 히알루론산 분자가 수분을 촘촘하게 채워주는 수분크림 ‘엘라비에 더마 하이드로 익스텐디드 히알 젤 크림’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엘라비에 더마 하이드로 익스텐디드 히알 젤 크림’은 바이오생명과학 기업인 ‘휴메딕스’의 고순도·고정제 히알루론산 생산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해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저자극 수분 충전 젤 크림이다. /유재희 기자